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노컷뉴스

 인쇄하기  닫기

## 서울문화재단, 1개 예술단체에 최대 2억5천까지 지원

내년 예산규모 182억, 지원 수혜단체 900여개로 확대

서울문화재단의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2008년 서울문화재단이 한 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천만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한 단체에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1억,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 사후지원 사업 5천만원 등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택과 집중 기조에 따라 '소액다건'의 분배식 지원에서 벗어나, '다액소건'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역량 있는 예술단체의 작품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서울형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추진 재원은 총 182억으로 확대된다. 지역 협력형 지원 예산 112억원은 예술위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이관에 따른 협력형 사업에 총 70억 원,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지원에 총 4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예산의 확대에 따라 서울지역의 문화예술 지원 수혜단체도 연간 700개에서 900개로 확대된다.

서울의 문화예술 지원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지원수혜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평가가 가능해져,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에 환류하는 등 지원사업의 심사평가 관리도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사전사후 7:3 비율로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서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까지 확장해 적용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지원과 별도로 시민들이 단순히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직접 참여 또는 주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준 전문예술 연합체의 발표활동과 '시민을 위한 축제'에 대한 지원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예술지원사업도 별도로 신설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희망드림지원사업' 및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great@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8-11-24 오후 5:51:48

Copyright © Since 2003 by CBS,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닫기